

## 濟州島 先史文化研究의 現況과 問題點

任 孝 宰\*

### I

제주도는 우리나라 最南端에 위치한 火山岩으로 이루어진 한국 最大의 섬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주도는 地理的으로 한반도와 日本 및 中國 大陸과 왕래하기 좋은 징검다리과 같은 위치에 있어서 文化上으로도 여러가지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본토와는 떨어진 섬이기 때문에 많은 점에 있어서 특수성을 유지, 보존하고 있어 근래에 들어 더욱 제주도 文化에 대한 폭 넓은 관심과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연구에 있어서 先史時代의 文化를 다루는 고고학 분야는 매우 중요한데 최근 발견된 몇몇 유적지에서는 좁은 지역 內에서 여러 文化 단계가 계기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주도 선사 文化 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여기서는 제주도의 고고학적 연구의 현황을 살피고, 그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 II. 제주도의 先史유적

제주도에서 先史시대 유물이 처음으로 發見된 것은 1928年 山地港 築港工 事때 우연히 노출된 熔岩洞窟內에서 漢式銅鏡 2개, 貨泉 2개, 五銖錢 4개,

\* 서울대 박물관장 · 고고학

大泉 52개, 貨布 1개와 土器, 石斧 등이다. 이들은 王莽時代(A.D 9~23)인 A.D 1세기의 것으로 대륙과의 交易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로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그 後 1959年 金哲堉 教授에 의해 처음으로 제주도의 支石墓가 보고된 바 있었으며 1967年 筆者와 하와이大學 Pearson교수는 20여개의 先史 유적을 發見한 바 있다. 제주도 구석기 洞窟 유적인 빌레못 동굴은 金元龍, 鄭永和 교수에 의해 1973年 발굴 조사되었는데 많은 動物化石과 石器들이 出土되어 中期 舊石器에 屬하는 동굴유적으로서 한반도 최남단 제주도에 있어서의 구석기인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획기적인 자료가 되었다. 다음 1979年度에는 제주대학 박물관에 의해 제주도 內 선사 유적지가 본격적으로 발굴 조사되기 시작하여 초기 철기시대에 屬하는 광지괘총등이 발굴되었으며 최근의 北村 바위그늘 신석기시대 유적을 비롯하여 다른 많은 유적이 새로이 조사되어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先史時代 유적지에 대한 조사활동은 근래에 들어 더욱 박차를 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종전에 기원후인 耽羅史 이후로만 알려져 왔던 제주도의 거주歷史가 이미 구석기시대로부터 歷史時代에 걸쳐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文化的 의의는 제주도 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 즉 도서 및 육지지역과의 교역을 통한 밀접한 관계에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 1. 舊石器時代

### 〈빌레못 洞窟〉

동굴유적으로 남한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빌레못 동굴은 발굴을 통하여 유적의 규모와 성격이 파악되었는데, 出土된 굽개, 돌칼 등의 石器들과 線刻石片과 갈색곰(Brown bear), 赤鹿(Red deer) 등의 動物化石들은 이 동굴의 文化的 성격과 編年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중기 구석기에 속하는 제주도의 구석기 유적이 확인됨으로써 한반도에서는 北쪽으로 함경 남북도로부터 南쪽으로 제주도까지 전국에 걸쳐 구석기유적이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국을 비롯하여 Asia 지역에 빙하기

동안만에 번식했던 갈색곰, 赤鹿 등의 化石의 발견은 일찌기 제주도가 홍적세 기간중 陸地와 連結되어 있었다는 한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動物化石을 동반한 구석기들이 出土됨으로써 당시 先史人의 生活相을 보다 상세히 엿볼 수 있는데 또한 동굴 入口로 보이는 지점에서 많은 量의 糞이 발견되어 굴속의 생활 흔적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 〈天池淵 遺蹟〉

1975年 嶺南大 鄭永和 교수에 의해 처음 석기가 발견되어 그 後 수년間에 걸쳐 유적의 地理 및 地質學的 조사와 地表조사가 行하여졌다. 천지연 폭포 근처 일대는 先史人들이 생활근거지로 삼을 만한 기본적인 立地的 조건이 마련되어 있어서 구석기 유적이 이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못될른지 모른다. 여기서는 典型的인 긁개(Scraper, Racloir), 尖器(Point), 홈날석기(Encoch, Notch) 등이 수습되었는데 이들은 後期舊石器時代의 中期 쯤에 해당하는 형태학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

## 2. 新石器時代

### 〈北村 遺蹟〉

北濟州郡 朝天邑 北村里 속칭 「고두기 언덕」에서 바위그늘(Rock Shelter) 유적이 제주도학 박물관에 의해 1986年 7月 발굴조사되었다. 이 유적은 발견 後 처음에는 無文土器片, 동물뼈, 貝殼 등이 채집되어 鐵器時代 내지 三國期 유적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번 발굴을 통하여 네개의 층위가 확인되었고 맨 아랫층인 제 4층이 신석기시대 유물 포함층으로 판명되었다. 이번에 발굴된 신석기토기편은 筆者가 직접 확인한 바 있는데 구연부에만 동물뼈 등으로 둘러서 장식한 3~4列의 삼각형무늬가 제주도만의 신석기 토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 밖에 全南 혹산도, 부산 금곡동 패총, 김해 수가리 패총 등에서 出土됐던 신석기시대 末期의 이중구연토기 및 원형 접렬문 토기들도 있다. 토기의 바닥은 예외없이 전부 둥근바닥으로서 우리나라 신석기토기의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부터 3천 5백년~4천년 前

(B.C. 1500年~2000年)부터 이곳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확실히 입증해 주고 있다. 또한 골각기류와 현무암제 곡물 및 열매 제분용의 갈돌 및 갈판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지금까지 확실한 신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 학문상 공백상태에 있었으나 이번 發見, 發掘을 계기로 제주도가 한반도 신석기시대 연구의 한 중요한 지역으로 대두되게 되었으며 나아가 구주, 오끼나와 및 中國 등의 Asia 全지역의 先史時代 文化 變遷상을 비교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더구나 이곳에선 유적의 층위가 4개로 區分되어 제 1층인 표토층은 삼국시대 및 후대유물이 出土되었고 2~3층은 초기 철기시대인 土器片 및 청동기시대의 孔列土器와 刻目土器가 나왔으며 4층은 신석기시대 토기층으로 되어있어 해발 20m여의 구릉지대에 위치한 자연동굴로서 신석기시대 이후 계속적으로 주거지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보존 상태도 거의 완벽한 상태로 남아 있어 층위별로 각시대별 文化 단계를 잘 보여주는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적이라 하겠다. 앞으로 최선의 보존대책이 요구되며 이곳을 잘 다듬어 학생들의 현장 학습장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더우기 구석기유적인 빌레못 동굴과 더불어 이곳 고두기 언덕의 바위그늘은 제주도 先史시대의 穴居유적의 생생한 증거로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유적이 무수히 발견될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지금까지 소홀히 취급되어 왔던 제주 문화권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보는 바이다.

#### 〈한들굴 遺蹟〉

1975年 발견된 洞窟 주거지로서 北濟州郡 挾才里 挾才 해수욕장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 역시 北村 바위그늘 유적과 비슷한 길이 20m, 높이 7m의 바위그늘(Rock Shelter)유적이다. 지표조사 결과 土器片, 骨片 등 유물이 채집되었는데 대체로 北村 유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동굴 근처에는 신석기人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모래 언덕이 한 층을 이루고 있다.

以上과 같이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한 제주도의 신석기 유적은 같은 島嶼

地方인 日本 오끼나와 신석기 유적으로 1975년부터 발굴 시작된 동원(東原) 遺蹟과도 비교되고 있는데, 토기의 형태 등 그 文化的 유사점이 지적되고 있는 바, 大陸, 한반도, 제주도, 오끼나와를 잇는 문화의 큰 흐름을 추측해 볼 수도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 3. 青銅器時代 및 初期鐵器時代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青銅器가 본격적으로 出土된 바는 없으나 青銅器時代에 屬한다고 생각되는 유물과 묘제는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육지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띄고 있어서 그 상세한 편년 등의 문제는 앞으로 구체적인 연구를 기다려 보아야 할 실정이다. 本土의 青銅器 내지 初期鐵器 文化 단계에 제주도에서도 支石墓, 石槨墓, 甕棺墓, 貝塚 等の 유적이 존재하며 유물로는 孔列土器를 위주로 한 無文土器類가 조금 늦은 시기까지 계속 사용된 듯하다.

#### 〈支石墓〉

제주도 西北 지방에서 많이 發見되고 있는 支石墓는 현재까지 상당수가 알려져 있어서 그 수는 63개에 이르는데 최근에는 더욱 추가 발견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미 발견된 지석묘중에 9基는 파괴되어 없어졌고 20여基는 훼손되었으므로 앞으로의 보호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데 제주도 支石墓는 火山岩 계통의 玄武岩으로 된 岩石을 材料로 사용하고 있으며 변형남방식과 남방식형의 지석묘들로서 그 형태上 本土, 특히 전라남도 지역의 지석묘와의 관련성이 시사되고 있으며 나아가 日本 구주 지역에 분포된 지석묘와의 관계도 추구해 보아야 할 과제라 하겠다. 제주시 龍潭洞, 吾羅洞, 三陽洞 그리고 北濟州郡 光舍里 등이 支石墓의 대표적인 分布地로 알려져 있다.

#### 〈貝塚 遺蹟〉

제주도 西南端 南濟州郡 大靜邑 上攀里 山伊水洞 부락에선 엄청난 규모의 보존상태가 거의 완벽한 貝塚유적이 1985年 7月 제주대학의 李淸圭 교수에 의해 조사되었는데 表土 채집된 토기는 孔列土器, 褐色磨研土器로서 함경도

지방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孔列土器가 제주도의 最南端까지 전파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순수 無文土器 단계의 貝塚으로서 최초의 유적이라 하겠다. 그年代는 本土의 여주 혼암리 시기(6C~7C B.C.)보다 200~300年 늦은 시기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1979年과 1984年 및 1985年에 발굴된 유명한 郭支貝塚 遺蹟은 地表에서 많은 無文土器片과 金海式 또는 新羅式 土器片이 흩어져 있고 動物의 骨片, 貝殼 등도 함께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대체로 初期鐵器時代에서 三國時代 初期에 걸친 유적지로 생각된다.

### 〈甕棺, 石槨墓〉

제주시 용담동에서는 1984年 合口式無文土器甕棺이 발견 신고되어 긴급 조사되었는데 地表로부터 2층 아래인 黑褐色遺物包含層(Ⅲ層)에서 積石遺構 墓域이 확인되었다. 墓域은 東西방향의 石列을 경계로 南·北 두 구역으로 나뉘는데 石槨墓 안에서 長劍, 短劍, 銚, 斧, 鏃, 鏃 等の 鐵製 一刮副葬品이 발견되었다. 이들 鐵器들은 한반도 및 日本九州 그리고 中國 漢代 철기 유물들과 비교 검토해 본 결과 기본적으로는 漢式系統의 유물로서 일단 南韓지방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생각되어 三國志 魏志 東夷傳 韓條에 州胡가 中國과 교역했다는 기록과 일치한다고 하겠으며 대략 그年代는 기원 1세기 末 2세기 初에 해당할 것으로 山地港 出土의 王莽때 화폐유물이 시사하는年代와 同一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철제품은 當時의 빈번했던 무역을 입증하는 좋은 자료로서 대마도, 이끼섬, 마산, 고성, 낙랑 등을 잇는 當代의 무역 루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Ⅲ. 結 言

以上으로 지금까지 조사된 제주도 先史 유적지에 대하여 概觀하여 보았는데 그 문제점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견된 유물이나 유적지에 對한 과학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그

예로, 年代判定에 있어서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한 측정법과 같은 방법의 응용이 요구된다. 나아가 出土된 鐵器나 土器에 대한 철저한 成分 분석 등을 통한 과학적 분석자료를 토대로 他地域과의 비교 연구에 기초를 삼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제주도의 지리적인 위치상으로 보아 한반도 남부 지역과 도서지방, 구주, 오키나와를 비롯한 日本지역, 나아가 中國大陸 等과의 文化的인 연계성이 인식되는 바 各 지역 間의 상호 文化 交流상황을 밝혀줄 수 있는 지역 間의 공동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제주도가 先史文化 研究의 새로운 자료가 축적됨으로써, 이들 자료들의 철저한 종합적 연구와 보존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國立濟州文化研究所같은 기관의 설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